

# 맹장수술도 막지 못한 올림픽 열망



**‘펜싱 에페’ 광주서구청 최은숙**  
대통령배 개인·단체전 우승 ‘2관왕’  
18일 전국대회, 실밥 안뜰고 결승진출

‘한국 여자 에페의 기동’ 최은숙(28·광주서구청)이 ‘맹장수술 투혼’을 발휘하며 대통령배 2관왕에 올랐다. 지난 23일 종목별대회 은메달에 이어 대통령배를 휩쓸며 국내 최정상급 실력을 과시했다.

최은숙은 지난 27일 강원도 양구문화체육관에서 막을 내린 ‘제54회 대통령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에서 여자 에페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우승, 2관왕을 차지했다.

최은숙은 26일 에페 개인전 결승에서 국내 랭킹 1위인 국가대표 유진실(계룡시청)을 8-7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국가대표 만연인 최은숙은 태릉에서 한술밥을 먹은 동료를 줄줄이 제압했다.

16강에서 강원도청의 이혜원을 3-2로, 8강에서 계룡시청의 최인정을 6-1로, 준결승에서 강원도청의 이혜원을 14-8로 잇따라 격파했다.

대회 직전 맹장수술을 한 최은숙은 공격보다는 수비 위주로 경기를 펼쳤다. 대회 첫날인 24일 실밥을 제거한 그는 정상 컨디션이 아닌 채 출전했다.

순발력이 크게 떨어져 수비 위주로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그의 획득점수가 고스란히 말해준다. 3분씩 3회전 15점 승부인 펜싱에서 최은숙은 16강 3점, 8강 6점, 결승 8점으로 승리했다.

박광현 광주 서구청 펜싱 감독은 “맹장수술 뒤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다. 순발력이 떨어져 공격보다는 수비 위주로 전술을 펼쳤다”며 “수술 뒤 근육 수축과 통증이 심했음에도 차분히 노련하게 경기를 잘해냈다”고 말했다. 최은숙은 다음날 열린 여자 에페 단체전에서도 우승을 견인했다.

최은숙·이바다·강영미·김미정이 조를 이룬 광주 서구청은 신아람·최인정·유진실 등 국가대표와 정주원이 버틴 계룡시청을 30-11로 크게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16강을 부전승으로 오른 광주 서구청은 8강에서 한국국제대를 45-31로, 준결승에서 부산시청을 45-39로 제압했다.

최은숙은 대통령배에 앞서 열린 ‘2014 전국남녀에페 종목별 오픈 펜싱선수권대회’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그는 18일 맹장수술 뒤 실밥도 제거하지 않은 채 대회에 출전, 결승까지 진출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한편, 남자 에페의 김승재(해남군청)는 결승에서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정진선(화성시청)에게 8-15로 막혀 은메달에 그쳤다. 김승재는 앞서 32강에서 팀 동료인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박경두를 접전 끝에 15-14로 꺾었다.

김승재·박경두·김준영·정성국이 팀을 이룬 해남군청은 남자 에페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K리그 주니어 ‘별’**  
금호고 나상호  
울 22골·득점 1위로 ‘MVP’

광주 FC 유소년 클럽 금호고의 스트라이커 나상호가 K리그 주니어 ‘별’의 별이 됐다.

나상호는 최근 프로축구연맹이 발표한 2014 아디다스 올인 K리그 주니어 베스트 11에서 MVP에 이름을 올렸다.

K리그 주니어 18경기에 출전한 나상호는 22골을 넣으며 대회 득점상과 공격포인트 1위,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하는 등 팀의 리그 우승을 이끌었다.

나상호는 평가위원회로부터 “활발한 움직임과 드리블 돌파, 공간 침투능력 탁월함, 날카로운 슈팅과 뛰어난 골 결정력도 갖췄다”는 호평을 받았다.

금호고의 수비수 채현기와 박인서도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채현기는 “영리한 풀백으로 패스와 맨마킹이 뛰어나며, 폭발적인 오버래핑과 날카로운 슈팅으로 상대의 골문을 노린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비 라인을 이끄는 통솔력과 높은 탄력에서 나오는 헤딩이 뛰어나며 맨마킹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인다”는 찬사를 들은 박인서는 K리그 주니어 최우수수비수 수상자이기도 하다.

전남 드래곤즈의 유소년 클럽인 광양제철고도 수비수 이유현과 골키퍼 박대환 등 두 명의 베스트 11을 배출했다.

이유현은 “강한 승부욕과 책임감으로 선수들 리더십이 좋고 강한 압박과 몸싸움으로 상대를 괴롭힌다”는 평가를 받았다.

리그 최소실점상, 무실점점수 1위를 기록하며 골키퍼 상을 받은 광양제철고의 수문장 박대환에게는 “경기 운영 능력이 뛰어나며 순발력과 반응속도, 판단력이 좋아 슈팅, 공중볼 처리능력 뛰어나다”는 호평이 따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스포츠 4대악 OUT”

문체부 승부조작 등 무관용 원칙 제도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강력한 스포츠계 비리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문체부는 경찰청과 함께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서울별관에서 스포츠4대악 신고센터 및 합동수사반을 통해 조사한 체육계 비리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규정한 ‘스포츠 4대악’은 조직 시위화, 입시 비리, 승부조작·판과판정, 폭력·성폭력 등 크게 네 가지다. 문체부는 체육비리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제도화, 체육단체 재정의 투명화, 학교운동부의 음성적 비용구조 양성화, 체육비리 전담 수사 기구 상시화 등 네 가지 원칙을 체육계 비리 근절의 근본적 시스템 개혁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조직 시위화를 기반으로 한 조직적 예산 횡령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횡령에 관련한 입원과 지도자들에게 ‘윈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영구 퇴출하고 형사 기소된 직원은 직위 해제 조치하기로 했다.

또 결산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승부조작이나 횡령 등 비리 발생 경기단체에는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비를 포함한 경기 단체 국고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계획이다. 체육특기자 입시비리에 연루된 학교 운동부에는 신입생 모집이나 경기 출전 제한의 징계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초·중·고교의 외국 전지훈련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종목의 특성상 외국 전지훈련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재정 투명성을 갖추고 학교 운영위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체육특기자 전형에 수능이나 내신 성적을 반영하도록 권장해 감독 등이 임의대로 선수를 선발하는 권한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실업팀과 경기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도 강화할 생각이다. 문체부는 전국체전 관련 실업팀과 지자체간 표준후원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대회 유치 지원금 계약 및 집행 절차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상시적인 수사 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에 스포츠비리 전담 수사반을 신설한다. 5월 출범한 합동수사반은 지금까지 6명으로 운영돼왔으나 앞으로 스포츠비리 전담 수사반을 만들어 상시적인 스포츠비리 수사 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 한기주·안치홍·김현수·이원석·황재균... 프로야구 별들 ‘사랑의 호프’

‘87 동기’ 자선행사... 수익금 어린이재단 기부

프로야구 ‘87 동기’ 한기주(KIA)·김현수(두산)·황재균(롯데)이 사랑나눔을 위해 1월5일 한자리에 모인다.

그라운드에서는 한치 양보 없는 승부를 벌이는 ‘적’이지만 겨울에는 같은 유니폼을 입고 사랑을 실천하는 ‘동료’가 되는 이들. 이번 겨울에도 자선 일일호프를 준비하고 있다.

정소년 국가대표라는 인연 속에 각별한 친구로 지내고 있는 한기주와 김현수의 만남은 이번으로 4번째다. 2011년 겨울 한기주가 친구 김현수, 팀 후배 안치홍(KIA), 동성고 선배 이원석(두산)과 자선 일일호프를 연 게 겨울 만남의 시작이었다.

구단이 주관하는 일일호프와 경매 행사는 있지만 선수가 개인적으로 나서 행사를 여는 경우는 흔치 않다. 매년 잊지 않고 행사가 계속되면서 지난해에는 황재균이 친구들과 좋은 일에 함께 하는 등 참가 멤버와 팀이 늘었다.

이번에도 ‘십일 선수’들이 가세한다. 기존 멤버인 안치홍과 이원석이 이번 겨울 각각 경찰청과 상무에 입대를 하면서 이들을 대신해 임준섭(KIA)과 정수빈·윤명준(이상 두산)이 가까이 힘을 보태기로 했다.

또 다른 지원군도 있다. 행사 진행을 담당해온 김주일 KIA 응원단장이 이번에도 마이크를 든다. 지난해에 이어 ‘87 멤버’인 배우 한정원과 김영욱, 가수 리아킴, 모델 송해나도 이들의 사랑 나눔에 함께 한다. ‘미녀 마술사’ 박보라도 친구 한기주를 위해 마술



왼쪽부터 두산 김현수, 롯데 황재균, 두산 이원석, KIA 안치홍·한기주.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의 정성에 한식포차 청담리에서 무료로 장소를 제공해주기로 하고, 팬들까지 자원 봉사 활동에 나서기로 하는 등 이번 겨울 사랑은 더 커졌다.

행사를 주관하는 한기주는 “프로야구 선수로서 과분할 정도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살고 있다. 조금이라도 사랑을 나누고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번 겨울에도 선수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됐

다. 좋은 일로 새해를 시작하고 그라운드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행사는 오는 1월5일 오후 6시 강남구 청담동 킴프빌딩 지하 1층 한식포차 청담리(문의 02-548-1773)에서 열린다. 유니폼·사인배트 등 경매 행사가 진행되고, 사인볼과 기념품도 판매된다.

일일호프와 경매·판매 수익금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